

● 圖書館隨想

나의 圖書館과 圖協

元 鍾 麟

公州教育大學教授

韓國圖書館協會가 어언 20년의 年論을 쌓아서 이제 어엿한 成年이 되었다.

創業도 어렵지만 守成은 더욱 어렵다. 圖協의 創立에 參與했던 그 當時의 圖書館人의 勞苦는 내가 직접은 모르지만 짐작이 가고도 남는다. 그리고 그동안 어려운 風土 밑에서 오늘에 이르기까지 圖協을 키웠은 歷代協會長, 事務局長을 비롯하여 任職員 여러 분의 勞苦는 더 말할 것도 없이 값진 것들이었다.

내가 圖書館과 因緣을 맺은 것은 1959년부터이다. 圖協과의 因緣은 다음 해인 1960년부터가 아닌가 생각된다.

나는 그 무렵 公州師範學校에 奉職中이었는데 Peabody 教育使節團이 主催하는 司書教師 訓練을 爲한 講習會에 參席할 機會를 갖었다. 그때 우리 學校에는 圖書館이나 그밖의 아무런 讀書施設도 없었기 때문에 그런 事務를 擔當한 教師도 勿論 있을리 없었다. 가장 가까운 事務라면 學生들의 教科書取扱을 하고 있는 圖書館이었다.

그 講習은 여름 放學과 겨울 放學의 두 期間에 걸쳐서 8週間 코오스로 實施되었는데 여름 첫 講習에는 圖書係를 맡고 있던 國語科教師가 指名을 받고 參席을 했다. 다음 겨울 放學에도 應當 그 사람이 再次 參席하게 되어 있었으나 講習을 拋棄하고 말았다. 여름 講習 동안에 英語 때문에 鍛鍊을 받았던 모양이었다.

講習의 內容上 英語解讀者가 受講을 하는 것이 無難하겠다고 校監에게 辭讓하는 理由를 밝혔다.

校監은 英語를 조금 解讀하는 젊은 社會科教師를 點적어 놓고 있었다. 저만치 떨어져 있는 그 젊은 社會科教師를 부르려는 刹那에 마침 내가 옆에 있다가 차고 나선 것이다. 英語科教師인 내가 布望을 한다면 더 바랄 것이 없다고 하면서도 나이가 좀 많은 것을 多少 矜려하는 눈치였다. 그때 나의 나이는 실촌하고도 일곱이나 더 超過하고 있었고 社會科教師는 나보다 10년이나 年下였었다. 校監은 한동안 여러모로 熟考하는 것 같더니 나에게 바통을 넘겨주고 말았다.

내가 圖書館과 因緣을 맺게 된 것은 이런 經緯에서였는데 實로 間一髮의 時間과 距離에서 이루어진 것이

다. 萬一 내가 그 자리에 없었다면 Nathaniel Hawthorne의 David Swan에 나오는 여러 境過처럼 그 因緣은 永永 나를 그대로 外面했을 것이고 아마 나는 圖書館의 코오스와는 아주 다른 길을 걸었을 것이다. 어쩌면 그 길이 나에게 더욱 華麗한 길이었다 하더라도 나는 圖書館의 길을 擇한 것을 決코 後悔하지 않는다. 나는 世俗的인 出世主義에 급급하고 싶지는 않은 것이다.

1959年 1月 4日인지 5日인지는 分明치 않으나 매웁도록 찬 小寒의 季節이었다. 9時 나는 延世大學校 圖書館 2層講義室에서 全國師範學校에서 모여든 다른 17名의 教師와 첫 對面을 한 것이다. 이미 그들은 함께 여름 放學中의 코오스를 마친 4週間 同窓生들이었기 때문에 서로 舊面들이었고 나만이 外톨박이 新入生이었다. 學問의 世界는 발을 들여놓고 보면 놀랍고 신기한 것인데 圖書館도 마찬가지였다.

처음으로 여러 講師님들을 對했다. 即 白麟(分類, 目錄) 張一世(收書) 明在暉(運營) 劉永玆(參考業務) 金泰律(圖書館資料) 등 경쟁한 圖書館 先輩들의 講義를 듣게 된 것이다. 이 분들 외에도 姜小泉(兒童文學) 閔泳珪(書誌學) Mr. Elord (特講)의 講義도 聽講했다. 講習責任者인 Mrs. Swiger는 그때에 本國에 歸國中이었기 때문에 몇일 뒤에서야 만난 기억이 난다.

이렇게 해서 나의 圖書館修業은 始作되었으며 이제 是 大學講壇에서 圖書館을 팔아서 밥을 먹는 圖書館正의 한 사람이 된 것이다.

講習期間中에 某 講師님이 課題를 하나 내 주었다. 內實은 記憶이 호미한데 내 것이 아마 가장 마음에 들었던지 그 분은 그것을 가지고 한 時間동안 講義를 進行해 나갔다. 學生들의 잘된 宿題物이 있으면 教師나 講師가 Sample로 쓰는 것은 어데서나 흔히 있는 일인데 오랜 時間이 흐른 뒤에 나는 그 課題物에 關해서 뜻밖의 이야기를 들은 것이다.

講習이 終盤에 이를 무렵 受講生中에서 2, 3名 짝을 選拔해서 Peabody大學에 留學生으로 派遣한다는 風聞이 들기 시작했다. 그 뒤 그 問題는 實現되었고 여러 系統에서 周到綿密한 選拔試驗을 거쳐서 決定되었지만

1次的으로는 Mrs. Swiger와의 인터뷰부터 시작되었다. 受講生들의 關心은 날카로웠다. 누구와의 인터뷰時間은 몇分정도였는데 누구와는 얼마고 하는데까지 神經을 쓸 程度였다. 講習過程에서 가끔 美國人 通譯을 맡았던 李某氏는 가장 有力한 候補者로 自他가 認定했기 때문에 結局 나머지 두 자리를 가지고 자루를 찢는 格이 되었다. 나의 인터뷰가 좀 길었다고 뒤에서 수군 수군했지만 나는 여름방학 코오스를 不參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고 本人인 나 스스로가 가장 無力한 候補로 생각하고 있었다.

그 해 4日인가 5日에 最終의인 結果가 發表되었다. 勿論 英語 筆答과 口述등을 바탕으로 한 것이겠지만 그러나 다른 考慮가 아주 없는 것도 아닌 모양이었다. 英語도 잘하고 가장 有力視되던 李某氏는 漏落되고 생각 밖으로 내가 들어간 것이다.

Peabody大學에서는 1年間 圖書館教育을 마쳤다. 1960年 9月 어느날 나는 다른 두 사람과 함께 앞날의 우리나라 圖書館界를 걸매고 나갈 當當한 일꾼의 한 사람으로 自處하면서 金浦空港에 첫발을 내 디뎠다. 떠날 때는 自由黨의 깃발이 드높았었는데 1年만에 돌아온 租國에는 4·19 獅子들의 喊聲만이 衝天하고 있었다. 나는 그런 속에서 學校에 復職이 되어 默默히 가르치는 일에만 專念할 따름이었다.

이제는 Mrs. Swiger와의 인터뷰 時間이 어떻게 누가 通譯을 받았었고 하는 것도 까맣게 잊고 있었고 또 안잊을 必要도 없는 것들이었다. 그 무렵 어느날 講習會의 講師였던 某氏가 學生들을 引率하고 修學旅行次이 교장에 들른 것이다. 나는 옛 스승을 對하는 氣分으로 이 先輩 라이브리리언을 某 料亭으로 鄭重히 모셨다. 그때 그분의 입에서 Sample로 썼던 나의 課題物 이야기 가 뒤어 나온 것이다.

어느 날 Mrs. Swiger가 講師陣을 모아놓고 候補者選定을 協議했었다는 것이다. 그 자리에서 내가 가장 強力하게 浮刻되었는데 그것은 誠實한 課題物 때문이었다는 것이다. 그 분이 알뜰에 弱한지 몇잔술에 多少려가 꼬부라지는 것 같았지만 그 때의 狀況을 昭詳하게 說明하는 것을 보던은 그 말은 믿어도 좋을 것 같았다.

體身도 작고 手腕도 없는 선형體으로 생겼지만 그녀석 課題物해 낸 것보니 꼼꼼하고 融通性없는 性格인 것 같은데 「도서관쟁이」 시키면 그런대로 써먹겠다고 생각들이 들어 갔었는지도 모른다.

어려서부터 사람 이름 외우는데 남달은 素質이 있었고 新聞이고 冊이고 하다 못해 편지까지라도 손에 들어온 것은 모조리 집에다 쌓아두는 버릇이 있는 나로서는 圖書館과는 天上의 緣分이었던지도 모른다.

Peabody에서도 英語가 짧아서 工夫하는데 에로가 많았던 것은 말할 것도 없었지만 課題物만은 기를 써서 해냈다. 다른 學生들은 20~30페이지 程度 打字쳐서 낼 것도 나는 이것 저것 주서 넣어서 100페이지 以上の 巨作에다 또 莫大(?)한 投資를 해서 製本까지 해냈고 한가지만 調查하라고 하면 나는 둘 셋도 아닌 다섯 여섯가지씩 調查를 해 냈다. 實로 어처구니없는 晚學徒였었다. 과제물을 받은 教授들은 누구나 눈을 휘둥글하게 뜨고 자빠지도록 놀랐으며 으레히 “very good!” 아니면 “very well done!” “Excellent!”라고 評을 써주었고 좀 더 자상한 분은 “I was interested in…”라고 적어 주었다. 그러나 나는 그것들을 額面 그대로 받아 드리지 않는 않았다.

우리가 가끔 學生들의 答案을 採點할 때 要領不得에다 該當되지도 않은 군소리만 들어 ; 놓는 것을 對하면 不快하고 뻔뻔스럽게 느껴지는데 美國人 教授들이라고 感情은 크게 다를 까닭이 없다. 質보다 量 爲主로만 꾸러나간 이 미련한 課題物을 그분들이 정말 잘했다고 생각한 것은 아닐게고 아마 이 명칭이 같은 外國人學生에게 婉曲하게 엇먹이는 뜻에서 한 말들일 것이다.

우리는 指導教授를 잘 만났다. Dr. Fitzgerald라는 분이었는데 外國에 오랫동안 나가 있던 經驗이 있어서 우리 外國學生들에 對한 理解가 깊었다.

講義室에서 듣는 理論도 重要하지만 그만 못지않게 見學도 重要하다고 생각하는 분이였다. 一年 四學期中에서 第三學期 90日間을 見學課程으로 配當했다. 主로 美國東北部 地方의 重要한 圖書館을 見學하고 週末마다한 차례씩 報告書를 내게 했다. 우리는 구석구석 누비고 다니면서 實로 80餘의 著名한 圖書館들을 見學한 것이다. 같이 간 다른 코오스의 Participant들의 羨望의 標的이 되다싶히 했다.

美國에서 돌아온 뒤 곧 나는 忠南道內의 몇몇 圖書館들과 地區協議會를 만들었다. 1960年 10月頃으로 記憶하고 있다. 大田大學 圖書館에서 첫 모임을 갖고 初代 協議會長에는 大田大學圖書館長이던 Mrs. Moore를 推戴하고 나는 副會長을 맡았다. 그때의 우리 協議會 멤버들은 다들 氣魄에 넘쳐 있었고 同志의식이 強하게 作用했다. 落後된 우리 地區를 釜山, 慶南 등 先進地區의 水準으로 끌어 올리는 것이 當面 目標였다.

一年이 지난 뒤던가 Mrs. Moore는 非圖書館人이라는 點을 들어 協議會長자리를 極力 辭讓했다. 結局 내가 그 자리를 맞게된 것이다. 분수에 넘치는데를 알면서도 忠實한 심부름꾼으로 생각하고 受諾한 것이다. 東奔西走하면서 첫 圖書館大會를 公州高校의 圖書館에서 열었다. 節次나 內容이나 어떤 모임에도 遜色이 없

는 盛大한 모임이었다. 그때부터 이것은 우리 地區의 하나의 傳統으로 이어져서 十餘年間 甲寺, 大川 등地에서 開催되어 왔다. 中央에서 많은 분들이 演士로 招聘되기도 했다. 아직도 그분들은 아마 甲寺의 맑은 溪谷을 잊지 못할 것으로 생각하며 그보다 더 우리 忠南 圖書館 同志들의 熱熱했던 그 눈빛을 잊지 못할 것이다. 그때가 圖協과도 가장 密接한 紐帶를 맺어 오던 때로 하나의 黃金時期가 아니었던가 생각된다. 우리 地區協議會 主催로 司書敎師 講習會가 피이크에 오를 때도 바로 이 무렵이었다.

그 黃金時期는 이제 어데로 갔는지? 그때의 그 氣魄의 主人公들도 더러는 海外로 더러는 方向轉換으로 지금은 거의 모두가 圖書館을 뜨고 말았다. 나도 「館」을 떠난지 四年 이제는 學쪽으로만 기울었다.

지금 나는 地區協議會長을 물리고 갔기 때문에 圖協과의 距離도 隔江千里인양 멀어졌다. 全國敎大協議會長의 자리는 지키고 있다지만 언제부터인가 當然職理事에서도 疎外되고 말았다. 그러나 언젠가는 향시 館으로 돌아가고 싶고 또 돌아가야 할 사람이다. 要領도 없고 눈치도 모르고 「德七이」처럼 鈍한 이 멍청이가 그래도 보금자리라고 찾아갈 곳은 그곳밖에는 없을 것 같다.

나는 지금 千古의 名山이라는 鷄龍의 靈峰이 굽어보는 어느 陽地바른 언덕바지에 改良種 사과를 심은지 三年이 되어 今年에는 첫 열매를 맺었다.

物件을 자리만 옮겨놓으면 돈이 붙어 나오는 장사꾼들 眼目으로 보면 苗木을 심어서 열매를 따기까지 閑漫없이 기다려야 하는 果樹園 造成은 이것 또한 속맥스럽기 이를데 없을 것이다. 그런데 나는 이 속맥스러운 일을 또 저질른 것이다.

이 사과밭 稜線넘어에는 큰 길가로 응기종기 조출한 집들이 한 20호쯤 모여 있다. 마을 이름도 土俗의 냄새가 물씬한 「시루미」다. 다들 때묻지 않은 淳朴한 農夫들만이 살고 있다. 가끔 만나서 함께 일도하고 對話도 나눠보면 誠實하고 부지런한 품이 꼭 빼다 놓은 圖書館쟁이 들이다. 또 가끔 내가 찾아가면 뚝에서 나온 「선상님」이라고 반가워하는 모습은 눈물 겨움도 록 고

맙다. 우리 內外는 이 厚한 人心에 무엇인가 報答하고 싶은 것이다. 그래서 앞으로 80株 果木들이 正直하게 열어만 준다면 그것을 판 돈으로 이 마을 어린이들을 가르치는데 보탬이 되고 또 내가 틈틈히 사서 쓴 幾千의 冊子를 미친 삼아서 꼭 圖書館을 하나 만들고 싶은 것이다. 그래서 그 고장의 어린이들이, 아버지와 어머니들이 일손의 여가에는 冊속에 묻혀 살 수 있다면 얼마나 자랑스러울까하고 지금부터 꿈을 키워보는 것이다.

이제 나도 今年이면 圖書館나이 열 여섯살이다. 이 글을 적는 동안 始終 내 머리에 맴도는 얼굴이 있다.

그 분은 전 圖協 事務局長이던 李鍾文이다. 내가 地區協議會長으로 있을 때 나는 圖協을 자주 들리고 地區協議會 育成을 爲해서 李局長을 자주 만났다. 豫算 配定을 해달라고 졸랐고 또 中央의 圖書館쟁이들에 비해서 地方 「쟁이」들의 發言은 너무 소홀히 다룬다고 내 판에는 謹嚴하게 따지기도 했다.

弱氣滿滿한 그분의 눈에는 아마 이제 막 圖書館의 門턱을 넘어선 헛병아리 「쟁이」의 抗拒「?」가 失笑를 자아내게 했을런지 모른다.

圖書館나이가 몇살이나 먹었느냐고 反駁을 해온 것이다. 때는 5月, 하늘은 푸르렀고 싱그러운 新綠이 바람에 한들거리는 小公洞 事務所 앞 뜰에서였다. 그분은 急한 불일로 時間을 催促하고 있었고 나는 메달리고 있는 참이었다.

「지금 中央의 圖書館人들 가운데는 十年 二十年의 「館」밥을 먹은 분들이 많은데……」

그 분은 더 以上 말을 하지는 안했지만 나에게서는 오랫동안 餘韻을 남겼다.

館界의 先輩를 알고 謙虛하라는 뜻이었을 것이다.

불일이 있다고 서둘던 그 분은 아주 館界를 떠났고 메달리던 當時의 初年生은 「學」쪽에 붙어있는 나이가 지 치면은 「쟁이」의 나이 토탈 十六歲가 되었다.

十年만 넘으면 큰 소리 좀 치리라 생각했었는데 이제 나에게서는 그 때의 氣魄은 사라지고 館마저 떠났다.

善本解題

韓國圖書館學研究會, 編
서울, 景仁文化社, 1975
356p. 26cm 5,000원(特價 3,000원)

本書는 國立中央圖書館에 所藏하고 있는 貴重圖書 686種, 2726책을 解題 收錄하였다.

특히 解說本文에 圖版을 곁들여 書誌學的인 立場에서 內容을 紹介하고 있다. 古書愛藏家들이나 各級 圖書館에서는 必須的인 基本參考圖書가 될 것이다.

阮堂對聯書軸 (朝鮮)

金正喜, 親筆, 影印本
서울, 韓國圖書館學研究會影印, 1975
2軸, 赤色, 金箔印泥, 127×33cm, 3,000원

이 書軸은 國立中央圖書館 所藏品으로서 深紅色 唐紙에 大字로 쓴 阮堂 金正喜先生의 親筆對聯을 實物크기로 影印한 것이다. 秋史體 筆致의 極을 이룬 作品이라고 한다.